

‘김치 대란’...배추 가격 급등했는데 구하기도 쉽지 않아

배추 가격 급등 한 포기 1만원 육박...우려 현실화 포장 김치 공급도 타격...온·오프라인서 품귀 현상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평균 1만원에 육박하는 등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려하던 ‘김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배추 소매가는 한 포기 9544원으로, 1년전(5671원)과 비교해 68.29% 뛰었다. 한달전(6245원)과 비교해도 48.54% 올랐다.

무도 마찬가지다. 대파와 무 등 김치에 들어가는 속 재료 가격도 급등했다. 이날 무 소매가격은 개당 3824원으로, 1년전(2008원)보다 90% 넘게 올랐다. 대파는 1kg에 3236원으로, 1년 전(2752원)보다 17% 가량 인상됐다.

배추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지난 여름 폭우와 태풍 등 기상 악화로 강원도 등 고랭지 배추 작황이 큰 타격을 입어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배추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여름 배추다.

국내 김치 업체들도 배추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배추 품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선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곳까지 생겼다. 대상 청정원의 온라인몰 ‘정원 e샵’에선 일부 품목에 이어 대부분의 배추 김치 제품이 일시 품절됐다. CJ제일제당 공식 온라인몰인 더마켓에서도 일부 제품이 품절된 상태다.

소비자들 뿐 아니라 김치 제조업체들마저 배추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공급량은 줄고 재료 가격은 대폭 올랐는데,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내 김치 업체들은 포장 김치 가격 인상에 나섰다. 국내 포장김치 업계 1위인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종가집’ 김치 가격을 평균 9.8% 인상키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5일부터 ‘비비고’ 김치 가격을 평균 11% 올렸다.

김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배추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싼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몰에 이어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포장김치 품질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포장김치 생산량도 감소한 상황”이라며 “예전처럼 각 지점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식 업계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산 김치 대신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거나, 김치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양배추 김치나 단무지 무침 등으로 대체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중국산 김치는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최근 값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에 대해 문의하거나 중국산 김치로 바꿀 경우 어떤 제품이 좋은지 여부 등을 묻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김치 만큼은 국산을 고집해 왔는데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어쩔 수 없이 중국산 김치로 갈아타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맛 좋은 중국산 김치 사용하고 계시면 추천해 달라”며 “중국산은 너무 싫지만 국산 김치 쓰기는 무리”라고 했다.

김장철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김치 현상...근본적 해결책 없나

가을철 1~2년 주기로 반복...채소류 재배 면적 조절 필요성 ↑ 자율적 수급 조절 위한 의무자조금 배추·무 확대 목소리도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대란이 발생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 태풍의 영향으로 농산물 작황 부진 현상이 발생했고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를 비롯해 무, 깎마늘, 양파, 파 등 채소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여름철이 지난 직후 김치는 금(金)치라 불리

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채소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가을철 김치 현상은 거의 1~2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김장철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남부지역 겨울 배추와 무의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김장철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름철 작황 부진 상황에 따라 김장철에도 김치의 주 재료 가격이 폭등하기도 한다.

올해의 경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의 가격 상승을 예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배추와 무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재배를 줄였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배추를 예로들면 2017년 배추 1포기 가격은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이때 배추를 생산하던 농가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2018년에는 다른 작물을 선택하게 된다.

2018년에는 배추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적었기 때문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이때 배추 1포기는 전년 대비 5.9% 오른 시세에 거래됐다. 2019년에는 배추 가격 폭등을 본 농가들이 배추를 심었고 가격은 12.8% 폭락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전년 배추가격 폭락을 경험한 농가들이 작물 재배를 줄여 49.2% 급등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공급 과잉으로 전년 대비 24.8%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다른 채소류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추 가격이 안정화 되면 무 가격이 뛰고 배추와 무 가격이 저렴한 때는 깎마늘, 양파, 파 등 김장에 필요한 재료 가격이 널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들만 김치 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채소류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데 있어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제안이 나온다. 현재는 재배면적을 조절할

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반대로 내리면 농민 피해가 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김치 대란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자조금 방식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지 채소 중에는 양파와 마늘이 의무자조금을 꾸린 상태인데 이를 배추와 무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하늘의 뜻’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농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지에서 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상 재해에도 공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관(官)주도 방식에서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농산물 수급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로 알고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